「書 評」

Thomas 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1948

丙 丕 度

著者 토ー마스、사우스크리프、아슈톤敎授는 一八八九年 만체스터ー의 東方에있는 Ashton-under-Lyne 에서 出生하여 만체스터ー大學卒業後 브ー감大學의 助講師를 거처서 一九一九年 만체스터ー大學에서 經濟學및通貨問題를 講義하였으며 同大學의 商業經濟學部長을 지내는 同時에 만체스터ー統計協會理事長을 歷任하였다。一九四四年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倫敦大學의 經濟史敎授로서 活躍中에있다

産業革命에關한 研究는 十九世紀末葉 A・로인비ー에 依하여 처음으로 體系的인 開拓의 길이 열리었으며 一九二八年 P、만투ー의 劃期的인勞作「十八世紀에 있어서의 産業革命」으로 막비암아 産業革命史研究는 一層補强되었으며 組織的인 體系를 가추게되었던것이다。上述한바와같은 槪說的인 研究를 土台로 삼아서 그後 個別的인 産業分野와 地域的인産業의 動態를 學的으로 追究한結果 尨大한 또 斷片的인 研究의 産物를 齎來하였다。그레서 如此한 諸研究와 結果에다가 새로운槪說的인 테두리를 賦與하여야한立場에 부닥치게 되있고 이課題의 要請에 應答하기爲하여 登場한것이 바로 이冊와 誕生理由인것이냐。그리고 著者는 本冊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著書를 이미 내놓았다。

Iron and Steel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1924

The Coal Industry of the Eighteenth Century, (wi h Joseph

Sykes) 1929.

Economic and Social Investigations in Manchester, 1833—1933, 1934

An Eighteenth-century Indus Industrinfistialist Peter Stubs of Warrington, 1756—1806, 1939

前記의 主要勞作을 通하여서 君取의 바는 産業革命의 過程에있어서 顯著한變革을 經由한 鐵鋼및 石炭生産部門과 革命의 先端的 地點으로써의 役割을 遂行하였던 맨체스터-및 十八世紀의 典型的인 工業資本家의 한사람이었든 워링톤의 피-터-·스탓프스에 關한 精力的인 研究의 結果로써 드디어 本書와같은 고-르에 到達하였음을 아슈튼敎授의 學問的발걸음이 生生히 立證하고있다。따라서 이著書의 誕生理由와 이것이 世上에 나올때까지의 著者의 學的經路를 아울러 생각해볼적에 産業革命史硏究에있어서 本書가 지니고있는 그問題的性格을 어느푸시나마 짐작할수있을 것이다。

于先 아슈튼敎授는 第一章에서 産業革命의 時代 即、一七六〇-一八三〇年의 時期를 그以前의 時期로부터 區別지우는 가장두렷한 社會史的인 特徵은 人口의 急速한 增加이다고한다。그는 人口增加의原因을 檢討한끝에 一七四〇年-一八三〇年의동안 英國에있어서의 受胎率은 安定的이었다는 槪算과 또 英國은 他國으로부터의 人口의 流入地이라기보다도 人口를 海外에로 내보낼 人口의繁殖場으로써의 機能을 擔當하였었다는 推理에立脚해서 人口의增加를 引導한것은 다름아닌「死亡率의 減少」이라는 斷定을 내리었다。여기서 注意해야할것은 P、만투-및 J、L、하몬드는 人口의增加를 産業發展의 直接的所産으로써 規定하고있다는 事實이다。그러나 著者는 英國에서의 人口增加는 商品의 生産量이 急速히 增大하고있었던 時期에 이러났었기 때문에 그들모하여금、그와같은 性急한 法則化에로 이끌려갔다고본다。아슈튼은 生活樣式의 改良과운데서 이런것은 確實히 産業의發展에 依據하고 있음을 認定하되 死亡率의 減少에있어서의 重要한 役割을 그기에다

가 歸着시킨다는것은 輕率하다고하며 그理由로써는 人口의 增加現象은 英國에있어서 뿐만이아니라 産業革命의 波濤가 全然 이러나지않었든 西歐및北歐에서도 大體로 엿볼수있었던故로 이라고한다。또한편 J·H·크라팜은 人口增加의 壓力이 商品의需要를 거쳐서 産業革命을 惹起시켯다고 論하였다。이것을 論駁하여 아슈톤은 萬若 그것이 眞實하다면 十八世紀의 아일랜드 十九世紀의 埃及、印度및支那에 關하여서도 經濟의 急激한 發展을 期待할수 있었을것이라야만 된다고하였고 人口의 增加는 모든사람들의 生活水準의 低下를 引導한다는 議論도 마찬가지로 成立할수 있다고 主唱하였다。英國에서는 人口의增大와 並行하여 다른 生産要素가 增大하였던 故로 비로서 國民의 大部分의 生活水準의 向上이 可能하였던것이다。人口를 除外한 다른生産諸要素의 增加에 關하여 著者는 第一章의 序論的立場의 範圍內에서 簡略하게 描寫하였다。

첫째로 耕地面積의 擴大를 指摘하여 農業과土地에關한 變革은 後章에서 論及하기로하고 여기에서는 오로지 옛날에 經濟的活動의 組織의 밖에 存在하였던 土地가 지금은 그體系속으로 들어가서 더욱 效果的으로 利用되게끔 되었다는 것을 論證해두면 足하다고한다。둘째로는 資本의 急速한 增加를 들어서 産業革命以前의 半世紀間에있어서의 利子率低下의 重要性을 十八世紀 中葉의 經濟發展의 急速化와 密接히 結付시켜서 아낌없이 强調하였다。다시 나아가서 아슈톤은 産業革命의 重要한 標識의 하나인 機械의 發明을 물리쳔 技術的革新에關한 浪漫的學說을 排斥하여 發明이란것을 個人的天才의 特産物로써 看做하지않고 어데까지나 社會的인 過程으로써 理解하고 있다。그는 發明을 「多數의 사람들이 登場하는 舞台위에서 演出되는 드라마」에 比喩하여 그成功與否는 많은俳優및 舞台뒤에있는 사람들의 緊密한 共演에 달려있다고한다。即、産業革命의 技術을 誕生시킨者는 平凡한 잉그릿슈人이나 아일랜드人이며 超人도아니며 英雄도 아니고 理智에豊

富하고 일찰하는 오·모·사피엔누(Homo sapiens)의 子孫이다 라고 展說하고있다。다음에서는 近代的産業의 勃興과 新敎徒와의 사이에서 偶然的이고 適合的인 助長促進關係의 存在를 肯定하면서 그것의 說明의 열여는 非口敎徒가 中産階級 가운데서 比較的敎育水準이 높은 階層을 形成하고있다는 事實에 伏在하고 있음을 示唆하였다。

끝으로 그는 土地 勞動 및 資本의 供給增加가 同時에 이러났다는일이 産業의發展을 可能케하였으며 低利子率 物價騰貴및 높은利潤에對한 期待는 社會에 活氣를 주었다고말한다。또 아슈톤은 物質的 經濟的 要素의 背後에있는 人間의 精神的革命의 役割를 너무나 重要視한다는일의 危險을 操心스럽게 回避하면서도 産業革命은 同時에 觀念의 革命이라는點을 看過하지를않았다。一七七六年의 아담 스미스의「國富論」이 制限的이고도 拘束的인 統制觀念代身에 自由스럽게 發展해가는 經濟에 있어서 進步는 無制限하다는 思想을 至上의 王座에다가 끌여올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喚起시키었다。

다음 第二章에서는 産業革命의 以前인 一七〇〇年부터 一七六〇年까지의 初期的産業의 諸形態를 論述하였다。換言하면 産業革命의 싹이本格的으로 피어나오기 以前의 前堤段階에있어서의 産業의 狀態를 이모저모로부터 考察하여 産業革命에로의 進路를 도와주는 平坦한길과 그것과는 反對로 그것에로의 進行을 阻止하는 隘路의 所在와 原因을 밝히려고 하였다。十八世紀에있어서 英國國民의 大部分의 生活源泉의 基盤이였던 土地는 十三世紀以來 거의 連달아서 엔크로-쥬어(enclosure)되고있었으며 이것때문에 그들의 土地를 不得已 떠나가게된 사람들의運命을 記述하는데만이 關心을 기우렸든 著者들이 올타미안에서 實行되었든 建設的인 活動을 等閑視하는 傾向을 非難하면서「엔크로-쥬어」에 關한 重要한 事實은 그것이 土地의 生産力의 增大를 齎來시켰다는 點에 아슈톤은 웨이트를 두고있다。그는 말하기를「生活資料를 準備하는데 少數의사람밖에

必要하지 않다면 그國民生活의 水準이 向上한다는것은 自明之理라고 하였다。十八世紀의 農業史의 大部分은 四圃式輪作이 남은 밀드렌드·시스템의 三圃式輪作代身으로 英國의 다른地方에도 擴大해갔다는것을 말하며 이것으로써 農業生産에 若干의進步가 이루워졌으나 輪作農業(Convertible Husbandry)에로의 移行은 매우緩慢하였고 開放耕地制度는 牧畜보다도 穀物生産에 重點을 옮겨가면서 좀체로 消滅하지를 않았으니 即農業革命이라고 불르기까지에는 아직도 距離가멀었다고 말하고있다。그以外에도 鐵鑛業및金屬工業을 說明하고 各部門의 勞動者의 初期的인 모습에關하여 이야기하고있다。農業에있어서는 共有權의存在 多期飼料의 不足 鑛業에서는 물을 處理하는 效果的인 方式의 缺如 製鐵業에 對하여서는 適切한 燃料의 不足 그위에다가 또 交通 商業 및 信用은 모두다 獨占的組織의 魔手에 억매이어서 拘束當하였다는 諸般의 事實은 初期的인 産業이 産業革命에로 圓滑히 前進하기 爲하여서는 除去되어야할 致命的인 難關을 構成하고있었다고 表明하였다。一七〇〇—一七六〇年의 期間에있어서 人間活動의 모-든分野에 成長은 있었으나 英國은 生産技術에도 産業構造에도 또 國民의 經濟的 社會的生活에서도 何等의 革命이라는것을 經驗하지않고 있었다는 表現으로써 그는

第二章의 끝을 맺었다。

第三章에 들어가서는 機械發明의 過程을 各産業의 分野에關하여 順序的으로 呈示하였다。아슈톤은 一七六〇年頃에있어서 事態는 發明이나 發展에 對하여 有利하게 作用하였다고 말하였으며 利子率의 低下 食糧、燃料、鐵、실및輸送의 不足때문에 생기고있던 諸障碍는 一齊히 撤去되었으며 한部門의 産業에서 惹起된 障碍가 다른産業의 進路에도 充血을 이르키는 것과같이 如此한 障碍의 除去는 廣汎한 解放을 가져왔다고 槪說하였다。革新이란 푸로세쓰는 한번 進行하기始作하면 加速度化하는 傾向을 가지는것으로서 그는 생각하고있다。이들의 有利한 條件아래서 一七六〇年代부터 産業의 各分野에서는 各種의 改良과 發明이 점차게 이러났다고한다。農業에서는 Parliamentary enclosure가 急速히展開되고 있었으며 한편 農業技術에서도 새로운 干拓方法 牧草人工的飼料의導入 새로운 發明에對한 技術協會의 賞金提供 또 農事改良의 必要性과 新式農法에關한 知識을 宣傳普及시키기爲한 一七七六年의 「農業經營者雜誌」의 第一卷 및 一八〇六年의 「農業經營者時報」의 第一卷이 各各 發刊되었음을 列擧하였다。그는 이렇게하여 各産業에있어서의 技術的革新을 段階的으로 要領있게 記述하고있다。

採炭業 製鐵業및 織物工業에서의 機械의發明 蒸氣機關의 出現을 解說하는데있어서도 學的水準을 維持하면서 興味있는 方式으로 讀者를 이끌리간다。그러나 이러한 技術的革新이 行해진 分野는 國民經濟의 僅少한 一部에 不過하다는것을 著者는 特히 留意하고있으며 技術的諸改良이 이룩되었던것은 資本財이라는 範疇에 包含되는 勞動要具 실 옷베와같은 中間生産物에 關係있는 産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한다。一八三〇年에있어서도 아직도 廣大한 面積의 農村的英國이 있었고 多數의 農村都市가 存在하였다고하며 發明이 實用化의 段階에 이르기까지에는 大體로 時間的間隔이 있다는것을 다일르고있다。

다음의 第四章은 一部의 資本과 二部의 勞動

의 무가지 章으로 나누어저있다。產業革命의 밋 받침으로 되었을 資本의 出處와 役割에關한 아슈톤의 解明은 그以前의 如何한 產業革命史研究에서도 찾아볼수없을만큼 그內容이 豊富하며 明晰하다고 말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그는 第四章의 첫머리에서 產業革命은 工學上의 事件인 同時에 經濟學上의 일이라고 前提하고 있다。英國이 그發明的天才의 成果를 自己의 所有物로 만들수 있었다는일도 增大된 貯蓄의 惠澤이며 그 貯蓄을 기꺼히 產業의 自由處分에 委任하려는氣分이 造成되었던 까닭이라고한다。成長해가는 諸產業에 投下되었던 資本은 都大體 어데로부터나 온것인가에 關하야 그것이 土地로부터 나왔다든가 海上商業에서 派生하였다든지 또는 國內에서의 二次的 產業으로부터 一次的產業에로 資本이 흘러갔다고 論議되어왔다。그러나 아슈톤은 그러한 見地에 對하여 反對의 證言을 提出할수있는 것이라고하여 여기저기에서 富가 增大하고 機會가 增加함에따라서 資本은 모ㅣ든方向으로 流動하였으며 產業의바람은 반드시 單一한 繁榮地帶로부터 분다든가 單只하나의 企業地帶로부터 분다고는 말할수없다고한다。그는 產業革命期를 通해서 工業金融의 重要한手段은 工場의建物을 近傍의地主 辯護士 僧侶및寡婦等에게 抵當하여 資金을 求得한다는일이 普通이였었다고본다 投資分野의 擴大와 豫想利潤이 커짐에따라서 른든商人들의 金融的役割의 活潑性 또工業資本家들이 工場을 建設하고 擴大하는데 所要되었던 長期資本및運轉資本의 調達 다시또 賃金의 規則的인 支拂을 爲한 資金의 準備와 때로는 그것의 不足을 謀免하려는 長期支拂制 및 現物支拂의 踏襲等을 날카롭게 究明하였다。그런데 萬若 適切히組織된 銀行制度가 있었더라면 이들諸困難을 即 金融的困窮을 避할수있었을 것으로 아슈톤은 觀察하였다。이리하여 그는 英國에있어서의 銀行業의 發達過程을, 工業의發展과 連關시켜가면서 嶄新한 分析을 베풀고있다。產業革命에 對한 銀行의 主要한 貢獻은 短期의 資金을 動員하여서 그것을

資本需要가 적은 地域으로부터 資本의 饑餓狀態에 허덕이고있는 다른地域에로 移動시켰다는 事實이다 고 指摘하고있다。勞動의 第二部에 들어와서는 木綿工業에서의 雇傭狀態를 槪觀하므로서 問題는 가장 明瞭化될 것이라고하여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綿業資本家가 勞動力을 獲得하는 두가지 工場徒弟의 過度勞動과 그들의 風紀紊亂 綿業資本家들의 本質的性格및 그들의 工場에 關한 無智에 言及하였다。또 一七六〇年—一八三〇年間에 人類의 不幸에對하여서는 普遍的으로 冷酷하였다는 通俗的인 印象을 물리치고 아슈톤은 綿業人側에서도 同情의關心이 高潮되고 있었다고하며 그것을 實證하는것으로써 一八〇二年의 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와 一八一九年의 法令은 例示하였다。都市와農村을 莫論하여 大部分의 工場이 그勞動力의 大半을 占은 勞動者層에게 依存하게금되었다는 그理由의 一部를 그는 技術的變革의 結果에서찾는 同時에 한편에서는 思索期를 넘은 사람들을 有能한 工場勞動者에로 育成한다는일은 거이不可能하다는데에 그의 一部를 歸屬시키었다。다시또 그는 繼續해서 過勞에 빠진 失業한 家內織布工의 慘狀만이 織物業에 있어서의 産業革命의 이야기의 全部를 차지하는 것은아니다 라고한다。모든 發明이 勞動을 輕減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는것을 確認하기 爲하여서는 工場內에있어서의 作業은 「마치 스포츠와 같았다」고한 A. Ure博士의 말을 빌알 必要조차 없다고 하였으니 工場勞動者의 多數는 그家族의 收入을 그以前의 어느時代보다도 豊足하게만드는 程度의 賃金으로서 雇傭되고있었다고 한다。産業革命은 熟練을 破壞하여 모든 方面에 簡單한 勞動으로써 充分히 適合할수있는 方向에로 産業을 變形시켰다는 理論에對하여서도 그는 말하기를 工場의建設에는 벽돌職工、石工 木工등의 熟練이 必要하있으며 工場內部의 設備를 마련하기 爲하여서도 個人 或은 小規模의 會社를 만들어서 活動하고있는 紡錘製造工 鋼製造工 其他多數人의 手工的 熟練을 必要로 하였다고하여

論駁을 加하였던것이다。建物이나 設備의 形態를 採하는 資本이 增大해감에따라 資本의 所有者는 그들의 資本을 必要없는데에 遊休化시킬수는 없다는것이 그들에게 重大問題를 提起하였으니 漸次로 勞動管理의 方式에 注意를 集中하게되었고 새로운 勞動管理의方式 새로운 勞動奬勵制度및 工場規律은 技術的 發明 그自體에 못지않게 重要한 產業革命의 一局面이었다고 아슈톤은 力說하였다。

第五章에서 個人主義와 헷세푸에ㅣㄹ (Laissez-faire)를 產業革命의 過程에 照應시켜서 檢討하고있다。十八世紀에있어서 特徵的인 社會的 目的을 僞한 手段은 個人도 아니며 國家도아니고 크라부이었다고하여 產業革命의 歷史를 曖昧하게만드는 諸傳說中에서도 그때의 사람들은 自己中心的이고 貪慾的이며 反社會的이 였다는 意見만큼 事實에 어긋난것은없다고 아슈톤은 明言하였다。萬若 產業革命의 時代를ㅣ狹義에서ㅣ個人主義의 時代로서는 生覺할수없으나 自由放任의 時代이라고 主唱한다면 어느程度까지 妥當할것이라고 말하였으며 產業革命이 一般男女에게 充分한 報償을 가저올수없었다하여도 그의失敗는 行政的 處置의 缺陷에因한것이지 經濟的過程의 缺陷에 基因한것은 아니다라고 論斷하였다。

마지막 第六章에서는 產業的變革의 過程은 여러가지 時間的場所的環境의 影響을 받고있다고하여 英國에있어서 產業革命의 所致로써 看做되어왔던 社會的 不安의 大多數는 實際로는 萬若 工業이 未發達狀態에 그대로 놓여있었고 또 何等의 經濟的 狀態의 變化가 없었더라도 如前히 作用하였을 諸力의 結果이었었다고한다。그러한 影響力으로서 物價의變動 凶作 投資의 波動및 政府의 借金등을 들고있다。아슈톤이 생각하는 바에依할것같으면 萬若 政治家가 安定된 價値의 本位와 適切한 交換手段을 準備하는데에 意圖를 두었더라면 또物價및利子率을 引上하는 或은 資源을 破滅에로 引導하는 戰爭이 없었더라면 產業革命의 經過는 더圓滑하였을 것이라고하였다。

産業革命의不幸(The disaster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이 意味하는바가 一七六〇—一八三〇年에 이르는 時代에있어서의 戰爭으로 말미아마 暗黑化되고 饑饉으로 因하야 悲慘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면 何等의 反對를 할수가없으나 萬若 技術的經濟的變革 그自體가 惨禍의 源泉이라고 主張한다면 그것은疑心의 餘地없이 不當하다고 그는 結論을 지우고있다。

以上에서 各章의 內容을 斷片的으로 다듬어왔는데 이것으로써 本書의價値를 推斷하기에는 困難한 것임으로 問題의 所在를 다시한번、重點的으로 捕捉해보기로하자 어쨋든間에 이冊은 過去의 모든産業革命史에 比較해서 經濟學的인 把握이 가장 豊富하다。特히 在來의 産業革命史研究에서는 거이 無視되었던 貨幣金融論的인 考察에 다가 아슨튼이 研究의 焦點을 設定하였다는點은 그分析의 結果가 完璧을 期할수없었더라도 그研究態度에 對하여서는 높은 評價를 드리는 것을 아끼지는 않은것이다。이제까지의 産業革命史研究의 모두가 다 그視角을 社會史的인 또는 技術史的인 側面에다가 偏重하였음을 考慮할적에 著者는兩面을 止揚하려고 企圖하였으며 經濟學의 領域에로 産業革命史를 還都시켰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아슨튼의 貨幣金融論的分析의 매쓰는 그 成果를 第一章및 第四章의 一部에서 顯著히 나타내고 있으며 그學的意義는 著大하다고 아니할수없다。近代經濟學이 貨幣의 機能에關한 反省으로부터 始發하였다는 事實를 聯想할적에 本書의 存在도 偶然은 아닌것같다。要컨데 아슨튼은 이 勞作에서 社會史的 或은 技術史的인 産業革命史로부터 經濟學的또는 貨幣金融論的인 産業革命史에로의 轉換을 소리없이 부르짖고있다는 늣낌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本書를 읽는데있어서 特히 吾人을 學的으로 刺戟한것은 産業革命이 勞動者에게 波及한 影響을 論하는데 있어서 아슨튼은 크랏함의 立場에 加擔하고있다는 點이었다。産業革命은 勞動者의 生活은 一般的으로 惡化시켰다는 하몬

드의 古典的見解를 反駁하는 크랍함 및 아슈톤의 論旨가 妥當하다면? 社會政策的分野에 對하여서도 커다란 學的問題를 投射하게 되는것이다 何如間 本書는 過去의 産業革命史研究의 集大成인 同時에, 參數의 新新한理論을 內包하고 있다는 意味에서 「問題의 冊」임을 否定할수는없다。

그렇다고해서 이冊을 産業革命史研究에 있어서의 決定的인 結論이다라고 大膽하게 斷言하기에는 아직도 遼遠한 感을 주는 史論의 許多한 部分을 露呈하고있는 아슈톤敎授의 特定한 研究史的인 背景은 再考되어야 할것이다。